

《香聲開蓮》

한시 · 글운호 이진호
서예 일중 최경훈

가을 문턱에서 마주한 그림

가을은 언제나 마음을 고요히 한다. 봄과 여름이 생동과 분주의 시간이라면, 가을은 그 소란을 거두고 침잠하는 계절이다. 숲의 초록은 점차 무게를 내려놓고, 들판의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영글며, 바람조차 한결 느려진다. 이 계절의 문턱에서 나는 한 폭의 그림과 마주했다.

일중 최경훈 선생이 그린 문인화, 주돈이의 《愛蓮說》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다. 화면에는 연꽃과 처마, 연꽃과 풍경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다. 그림 속 연꽃은 연못에 뿌리를 내리고, 풍경은 절간 처마 끝에 매달려 있었으니, 한 절간이라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숙명을 지닌 존재들. 그림에도 서로를 향한 동경을 향기와 울림으로 주고받는, 애절하면서도 숭고한 교감의 장면이었다.

그림 속의 연과 풍경

작품 속 연꽃은 화려한 군락을 이루지 않는다. 오직 한 줄기, 곧게

솟은 꽃대가 화면의 중심에 자리한다. 끝에는 연분홍 꽃잎이 피어 있으며, 그 옆에는 이미 씨앗을 품은 연방이 무겁게 드리워 있다. 수면 위에는 크고 작은 연잎이 농묵과 담묵으로 펼쳐져 있는데, 먹빛이 스민 잎들은 고요한 물결처럼 번져 나가며 화면에 깊이를 더한다.

그 위로 처마 끝 풍경(風磬)이 매달려 있다. 금속의 몸체와 물고기 모양의 추는 바람을 기다리듯 정지해 있지만, 보는 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은은한 울림이 들려오는 듯하다. 화가는 풍경을 화면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바람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연꽃과 풍경.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한 공간을 공유하는 두 존재. 물리적 거리는 있으나 향기와 소리라는 무형의 매개로 서로를 느끼고 있다. 그 애뜻한 관계가 바로 이 그림이 지닌 핵심적 정조라 할 수 있다.



제발과 애련설의 올림

작품의 한켠에는 주돈이(周敦頤)의 《愛蓮說》중 널리 알려진 구절이 적혀 있다.

予獨愛蓮之出淤泥而不染，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不蔓不枝，香遠益清，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

나는 오직 연꽃을 사랑한다. 진흙 속에 나와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고 겉은 곧으며, 덩굴지 않고 가지를 뻗지 않는다.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욱 맑아지고, 우뚝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감상할 수 있을 뿐 가까이 장난삼아
다룰 수는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한 꽃의 찬미가 아니라, 군자의 삶을 향한 선언이다. 주돈이는 국화를 은자의
꽃, 모란을 부귀의 꽃이라 불렀고, 연꽃을 군자의 꽃이라 칭했다. 진흙 같은 세속 한가운데에서
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연꽃의 상징이었다.

일중 선생의 그림은 이 선언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다. 단 한 송이 연과 풍경을 대비시킴으
로써, 군자의 고결함과 동시에 인간적 애절함을 함께 드러낸 것이다.

화가의 필법과 은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가의 필법이 이 정조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잎은
농묵과 담묵의 층위를 통해 깊이를 얻었고, 꽃대는 직필의 힘으로 곧게 뻗어 있다. 색채는 절
제되어 있어 연꽃의 분홍과 연잎의 푸른빛이 화면의 여백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

풍경은 간결하면서도 상징적이다. 바람이 불면 울릴 것 같은 정적의 순간은, 마치 《愛蓮說》
속 ‘香遠益清’의 구절을 시각화한 듯하다. 보이지 않는 향기와 보이지 않는 소리가 서로를 찾
고 교감하는 장면. 이는 결국 연꽃과 풍경의 사랑이라는 은유로 확장된다.

풍경은 남성적 존재로, 연꽃은 여성적 존재로 비유된다. 한 절간이라는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숙명. 그러나 향기와 올림이라는 무형의 언어로 교감하며 마침내 연꽃을
피워낸다. 이 애절한 서사가 그림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香聲開蓮

칠언절구 《香聲開蓮》

이 사유는 한 편의 한시로 이어졌다. 연꽃과 풍경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담아낸 칠언절구이다.

香聲開蓮 (향성개연)

檐前風磬寄相思 (침전풍경기상사)

처마 끝 풍경은 그리운 마음을 풍경소리로 보내니,

沼畔芳蓮望所知 (소반방련망소지)

연못의 연꽃은 풍경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네.

一縷清香隨響至 (일루청향수향지)

한 줄기 맑은 연꽃 향기가 풍경 울림을 따라나서니,

聲和芳氣共開時 (성화방기공개시)

소리와 향기가 서로 어우러져 꽃으로 피어난다.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구절 ‘共開時(함께 피어나는 때)’이다. 서로 닿을 수 없는 두 존재가 향기와 울림을 통해 마침내 꽃을 피우는 순간.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의 묘사가 아니라, 만남과 교감의 은유이다.

오늘의 삶에서

연꽃과 풍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과도 겹쳐진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물리적 거리를 넘어 마음으로 교감하는 관계들. 그 속에서 때로는 향기가, 때로는 울림이 다리를 놓는다.

화려한 부귀를 좇지도, 은둔의 고독에 갇히지도 않은 채, 세속 한가운데서 고결함을 지키는 삶. 《愛蓮說》이 노래한 군자의 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더 소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향기와 보이지 않는 소리의 가치를 다시 음미해야 할 것이다.

맺음

지난달에는 장자의 무위와 서예의 고요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달에는 연꽃과 풍경의 애절한 교감을 이야기한다. 봄을 고양이에, 여름을 개에 빗대었다면, 가을은 이제 연꽃과 풍경의 노래로 내려앉는다.

나는 그림 앞에서, 그리고 시를 쓰는 자리에서 문득 물음을 받는다.

“그대는 향기와 울림으로 누군가와 교감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는 뜻을 받아,
서로의 삶을 꽃피우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10월의 독자 여러분께 함께 건넨다. 

주돈이(周敦頤, 1017~1073)

- 송대 성리학(性理學)의 개창자, 주희(朱熹)와 정호·정이 형제의 스승 격으로 평가되며,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 호는 ‘濂溪(염계)’, 후세에는 흔히 주염계(周濂溪)로 불린다.

대표작 《愛蓮說》 짧은 산문 형식으로, 국화(은자의 꽃), 모란(부귀의 꽃), 연꽃(군자의 꽃)을 대비하여, 연꽃을 ‘군자의 꽃’으로 찬미했다.

사상적 의의 연꽃은 진흙 속에 나와도 물들지 않고(出淤泥而不染), 곧고 고결하게 서 있으며(亭亭淨植),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아지는 존재(香遠益清). 이를 군자의 삶의 은유로 삼아, 세속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는 삶을 이상으로 제시했다.

후대의 영향 《愛蓮說》은 중국과 한국, 일본에까지 널리 읽히며 군자와 청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조선시대의 선비들도 이 글귀를 사랑하여 문집과 서예에 즐겨 인용했다.

한시·글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일중 최경훈(逸中 崔競勳)

- 대한민국소품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입선
- 사)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1급 지도사
- 동방대 서예 문인화 과정 12기 수료
- 서예 문인화 교육 강사 1급